

민주, 현장중심 세 줄이기...국힘, 외연확장 세 불리기

여야 선대위 쇄신 어떻게
이재명 후보에 인사전권 부여
"날렵하게 가볍게 달려가겠다"
야, 임태희 종합상황실장
공동위원장 국회 중진들 배제

여야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10여일 남겨두고 선대위개혁위원회 전면 쇄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쇄신 문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선대위 개편에 착수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종인·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의 인선을 공식 발표하는 등 여야 모두 대권 캠프 재정비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당의 쇄신을 노리고 있고, 윤 후보도 옛 민주당 계열 인사 등을 영입하면서 중도층 확장과 함께 세별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여, 이재명 후보 체제 확립=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대적인 선대위 쇄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선대위 쇄신 문제와 관련, "오로지 실력, 국민을 위한 총정,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날렵하게, 가볍게, 국민이 원하는 곳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겠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민주당도 이날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이 후보에게 선대위 인사권 전권을 부여하고, 선대위원들은 이 후보에게 거취를 위임하고 백의중군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전환을 선언한 만큼 이 후보에게 선대위 재구성 권한을 백의위임하고 속전속결로 쇄신 작업을 끝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은 선대위가 너무 크고 비대해 현안 대응에 느리고, 책임·권한 문제가 불분명하다는 것 등이었다. 경선 후폭풍을 수습하고 '원팀'을 이루기 위해 각 경선 후보 캠프 측 인사와

루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렸지만, 복잡한 조직구성 등으로 움직임이 둔화했다는 것이 쇄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169명(지역구 157명·비례 12명)의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민주당이 현장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 모두 지역현장으로 내려가는 '하방'을 통해 돌아선 민심을 잡는데 전력 투구를 하겠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쇄신론의 핵심인 외부 인사 영입이 관건이다. 당내 인사 둘러막기 보다는 참신한 외부 인사 영입이 없다면 쇄신론에 대한 평가절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쇄신론의 결과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주당 선대위의 외부 인사 영입이 주목된다.
◇尹측, 김한길 영입 등 외연 확장=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21일 김종인·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이른바 '신(新) 3김(金) 삼각축'을 형성했다. 그동안 선대위의 간판인 이들 세 사람의 인선을 놓고 막바지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뒤로 하고 선대위 핵심 축을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선대위의 간판인 이들 세 사람이 인선 막바지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뒤로 하고 '원팀' 시너지를 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표는 이날 "대선 전반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의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위원장이 맡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후보 직속의 새시대준비위원장은 김한길 전 대표가 맡는다"고 발표했다.
"3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나머지 인선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보좌하며 선대위를 총지휘하는 야전사령관 역할의 '종합상황본부장'을 신설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추천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임명하기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선대위원장의 경우 중진들 가운데 국회직, 원내 선출직인 정진석 국회의부의장, 김기현 원내대표만 남기고 나머지 의원들은 배제하고, 대신 정치권 밖 참신한 인물들로 채우기로 했다. '조국 측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공동 저자인 권경에 변호사 등 중도를 넘어 합리적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에게까지 소구할 수 있는 인물들이 후보군에 포함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애초 공동선대위원장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중진들은 중앙선대위 산하 분야별 총괄본부에서 실무를 맡거나 지역 선거운동에 투입될 전망이다.
최고위급 인선의 '교동정리'가 마무리된 만큼 선대위 출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실·본부장을 비롯해 큰 줄기의 선대위 인선은 이번 주 초중반이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송영길 "모든것 비우고 하방해 새 출발 바닥 민심 심상치 않아...변화만이 살 길"

"선대위 새 인물 동참 필요 젊은 세대 대변자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1일 선대위 쇄신론과 관련, "모든 것을 비우고 하방하여 새롭게 다시 출발하자"고 말했다.
송 대표는 페이스북 글 및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바닥 민심이 만만치 않다. 우리가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속에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민 속에서 민심을 얻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민주당에 맡겨도 좋겠다는 국민의 허락이 나올 때까지 좀 더 변화하고 뛰어아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과 선대위에 대해 재탄생에 버금가는 강력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만, 독선을 버리고 민심과 동떨어진 것과 결별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켜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이재명은 합니까' 보다 '이재명은 바랍니까'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선대위 구성과 관련, "원팀 목표는 달성했지만, 일반 국민과 외부 인사들이 들어갈 공간이 막혀 있는 듯한 답답한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해서 새롭게 선대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서 가능한 많은 당원과 주민을 만나줄 것을 부탁한다"면서 "하방"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수요일 전국구의 999명 당원과 저녁 9시에 우리가 9시 뉴스 앵커가 돼 동시에 라이브 방송을 10분 정도 같이 하는 것을 준비중"이라고 소개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전, 대언론 관계 강화 노력 등도 요청했다.
송 대표는 또 "새 인물을 선대위에 동참시키는 노력도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비워줌으로써 젊은 세대와 새로운 각 분야의 절박한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을 모아서 선대위가 국민과 함께하는 선대위가 되도록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30대 외부인사 10여명 공동위원장 민주당 광주시당 선대위 파격 구성 예고

여야가 차기 대선에서의 승기를 잡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한 선대위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광주시당의 선대위 구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의 선대위에서 탈피, 20~30대 외부 인사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대거 영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1일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에 따르면 광주시당 선대위는 10여명 내외의 20~30대 외부인사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들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직은 물론 영화감독,

뮤지션, 마을활동가, 기후위기대응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동선대위원장은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의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현재 민주당원도 아니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승리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물러나 백의중군의 자세로 중앙과 지역구에서 활동하기로 했다. 송갑석 시당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말는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마다하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당 선대위는 실무 담당하는 본부장 자리에도 20~30대 인사들을 전진 배치, 혁신과 변화의 움직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선대위에 20~30대 외부인사들이 대거 영입되면서 기존 조직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 광주에서부터 '이재명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대위 발대식은 오는 28일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 등 당 내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송갑석 위원장은 "광주-전남에서 이재명 바람이 불어 차기 대선 승리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광주정신으로 미래를 열어간다는 자세로 차기 대선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구인·구직자가 함께하는 만남의 장]

2021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채용박람회

2021. 11. 24(수) ~ 11. 25(목) 10:00~17:00

| 온라인 | 2021. 11. 17(수) ~ 11. 25(목) 광주잡넷 with 워크넷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A홀

부대행사

1 색채심리검사

2 이미지메이킹

3 타로검사

4 이력서 사진촬영

* 부대행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경제고용진흥원 **REPI** 지역고용정책연구원

후원 광주지역 인적자력개발위원회